

# 남북 정보화 교류협력 추진방안

TTA 표준화본부 표준지원팀 이흥열

## 1. 개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시공간의 제약들이 극복되고 있고 일명 사이버 공간이라 불리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말한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북한과는 아직도 자유로운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구의 정반대 위치에 살고 있는 민족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마당에 한반도라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동일한 말과 글을 쓰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교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성의 여지를 갖게 한다.

북한은 2000년 들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정보기술연구 단지를 방문한 이후 정보화발전 사업에 주력하기 시작하였으나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정보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념의 갈등과 상호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통일 논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남북간 정보통신 기술수준의 격차로 인해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화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간 정보통신 수준의 격차를 좁히고 북한지역 정보통신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는 일이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단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의 이동을 위한 통신시설의 구축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기본사항이 될 것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인터넷 등 통신망 구축을 추진할 것이고 통신망의 특성상 북한

내에서만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통신의 개방은 가장 먼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개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에 있어서의 정보화의 의미는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통일을 앞당기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한간에 충분한 정보화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전에 이루어지는 남북한간의 정보화 교류협력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예견되는 남북한간의 동질성 회복 문제를 사전 감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 북한의 정보화 현황

### 가. 정보화 정책

1998년 8월 인공위성 '광명성 1호'의 시험발사 성공은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고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어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더욱 강조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북한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과학중시를 김정일의 사상으로 내놓았으며 경제회복과 동시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도 일거에 진입할 수 있는 '단번도약' 전략이 필요하여 IT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01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기술재건 운동을 벌이고 있다. 내각의 주도하에 몇몇 주요 산업 및 공장부문의 설비들을 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시설들로 대체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사무자동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IT산업 발전전략은 단계별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단기적 전략은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를 목표로 기술개선 사업과 생산 및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중기적 전략은 IT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S/W산업 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기적 전략은 중단기적 전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IT 인프라 구축과 H/W산업에 대한 점진적인 투자를 통해 IT 산업을 발전시켜, 이를 토대로 북한경제 일반을 '단번도약' 시키고자 한다.

IT산업 발전을 통해 북한 경제가 '단번도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IT산업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산업연관 효과가 여타의 산업부문에 파급되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적 관점에서의 IT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S/W산업 발전으로 연구개발 능력과 수출경쟁력을 높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IT 인프라의 확충과 H/W 부문을 발전시키면서 IT산업 자체의 역량 강화와 동시에 북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IT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은 중단기적 전략과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의 성공 여부는 러시아나 중국 등 전통우방 국가들과 서방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기술 교류·협력·지원을 통해 IT관련 첨단기술 축적과 이들로부터의 자본 도입이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정보과학 및 정보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 과학기술 발전 3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즉, 1차 과학기술발전 계획(1988-91)를 통해 초대규모 집적회로, 대출력 고내압 반도체 생산의 공업화와 경제 주요 부문의 전산화의 일환으로 조선컴퓨터센터를 중심으로 전산망을 구축하

며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울러 하드웨어 등의 생산에 비중을 두었다.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94)은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의 전산자동화와 초대규모 집적회로 생산의 공업화를 당면 목표로 했으며, 16 Mega 초대규모 집적회로 개발과 함께 32bit 초소형 컴퓨터의 공업화와 64bit 초소형 컴퓨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바세나르 규제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한 첨단 컴퓨터 장비의 도입 곤란으로 하드웨어 부문에 주력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소프트웨어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 나. 하드웨어 분야

북한은 이미 1960년대 말에 '전진-5500'이라는 제 1세대 디지털 컴퓨터를 완성하였고, 1970년대 말에는 '용남산 1호'라는 제2세대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 후 1982년 개인용 컴퓨터(PC) 시제품인 '봉화4-1'을 제작했으며 32bit 공업화 달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16 Mega 집적회로(IC)를 개발했으며 IC 시험공장을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장치산업인 반도체 분야가 워낙 자본이 많이 드는 산업이라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1992년 5월 서방에 투자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발표된 것은 없으나 바세나르의 규제를 받아 대형 컴퓨터의 도입이 매우 어렵고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등의 연구소와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에는 최신 워크스테이션급의 컴퓨터가 많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486급이하 PC를 사용하며 펜티엄급 PC는 주요기관 및 연구소 등에 보급되었다. '03년 3월부터 중국과 합작으로 펜티엄IV급을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컴퓨터 보급대수는 약 15만여 대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이 매우 열악한 까닭은 첫

째, 북한의 경제난과 둘째, 바세나르의 규제로 인해 컴퓨터의 수입·도입이 어려웠고, 셋째,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 다. 소프트웨어 분야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하드웨어 산업에 비해 적은 자본으로 산업을 육성을 시킬 수 있어 북한 당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족 프로그램 육성'이라는 원칙 아래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매년 '전국 프로그램 경연대회'의 개최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기술 발전을 돕고 있으며 여기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커다란 특전을 주고 있다.

북한에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평양전자계산기 단과대학 등 대학과 과학원, 평양정보센터, 조선컴퓨터센터 등이다.

이들 기관에서 교육, 비즈니스, 워드프로세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는 인공지능, 퍼지이론, 영상처리, 문자인식, 기계번역 등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한 제품도 많이 있어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과 관련한 북한의 대표적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번역체계'이다. 번역하려는 외국어 원문을 광학식 문자읽기 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조선어로 번역해 내는 가치 있는 번역체계로 선진과학기술 문헌보급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둘째, '국내 컴퓨터망에서의 발명 및 특허자료 검색 체계'이다.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국부 컴퓨터망을 통일적으로 연결하는 범컴퓨터망을 처음으로 실현하고

국제컴퓨터를 통한 체계 연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셋째, '국제 장거리 자동검색체계'이다. 과학기술 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통신수단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국제과학기술기구와 다른 나라 과학기술 정보 기관의 자료들을 원격 호출하여 검색할 수 있는 국제 장거리 자동검색체계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실용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기관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 라. 통신 분야

북한이 전화망 확충을 비롯한 통신에 주력한 것은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와 통신선로의 개량화이다. 북한은 최근 전화 자동화, 디지털화, 전자계산기화를 통한 통신망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다. '97년 4월에는 평양과 각 지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시외전화망을 자동화하는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96년부터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바꾸고 통신방법도 디지털화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디지털 전화교환기 40만 회선과 이동통신 2만 회선을 설치하는 사업을 확정, 홍콩의 허치슨사와 공동 추진하기 위한 의향서를 '98년 교환하기도 했고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등 몇몇 연구소와 대학에서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현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초고속통신망의 설치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통신체계는 '운수와 함께 인민경제의 특수한 부분을 이룬다'고 규정하면서 유일적 지배체제,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부여된다. 북한은 통신산업을 기획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의 일종으로 여기고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와 사회의 폐쇄적인 기초를 유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북한의 통신은 내각 산하의 체신성에서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체신성은 조선체신회사와 각 도에 체신처를 두고 있으며, 각 도 단위의 체신처에 각각 1개씩의 전신전화국과 우체국이 있다. 또한 각 시·군에는 체신소, 각 리·동에는 체신분소가 편성되어 있다. 군 단위의 체신소는 군내의 전신전화, 우편, 유선 방송의 증폭, 중계 등의 업무와 각 리 단위의 체신분소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사업분야는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북한의 통신이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보도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하는 통신의 개념과는 다르다. 북한은 우리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체신'이라고 하며 통신을 접수, 전달하는 사업을 통해 사회적 생산과정과 주민생활에 복무하는 경제부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체신성 산하에는 220여 개의 전신전화국과 2200여 개의 전화분국이 배치되어 있으며 유선전화 110여 만 회선으로 평균 5%정도가 디지털화 되었고 중국, 러시아의 광통신망을 이용해 170여 개국과 국제전화를 중계하고 있다. 2003년 12월 이동통신(GSM방식)기지국 50개를 건설했고 휴대전화 2만여 대를 보급하였다.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이 태국의 타이콤 3호 위성으로 1999년 10월 10일부터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북한의 위성통신기술은 통신시스템 및 위성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 통신 선로의 개량화 등 기본 통신시설 개량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했으며 낮은 기술단계와 군사적인 목적 혹은 체제 유지를 위한 통신망 구성에 치중한 결과 현재까지는 낙후된 시설이 대부분이다.

## 마. 인터넷 분야

북한은 이미 호주와 인터넷 연결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아직도 국가적으로 인터넷 활용을 막고 있으며 '03년 국가식별 도메인 kp를 활용한 사이트 개설 및 국제인터넷망과의 연결계획을 표명했으나 웹상의 도메인네임에서 북한의 국가기호 kp를 사용하여 등록한 웹사이트는 한 곳도 없다. 그러나 폐쇄적 인터넷 망인 인트라넷을 '00년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통해 개발 1,300여 기관과 연결하여 인터넷처럼 활용(이메일, 정보검색, 채팅 등)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인터넷 활용기술을 축적하고 인터넷 개방에도 대비하고 있으나 체제선전 및 경제부문의 상업용이다. 외국공관, 일부 국제기구 평양 사무실 등에 위성을 이용한 외부 인터넷 유료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남북한의 정보화 교류협력

### 가. 하드웨어 분야

TV, 전화기, PCB 회로기판, ADSL 스플리터 등 한 정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간접비, 낮은 임가공비 경쟁력 등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이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된 경우가 많지만 향후 개성 시범공단 IT장비 제조업체는 성과를 가지적으로 나타낼 것이며 하드웨어 부문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소프트웨어 분야

북한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남북공동소프트웨어 개발 및 북한소프트웨어 수입 등의 형태로 주로 중국이나 북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로통신의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S/W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이 사업의 초기단계 수준이라고 평가되지만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 다. 통신 분야

남북간 통신망은 '71년 남북적십자간 2회선 직접연결을 시작으로 금강산관광 13회선 등 총 64회선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운용중이다.

'05년부터는 남한과 개성공단간의 통신망이 구축되어 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4. 남북한 정보화 교류협력 방안

### 가. 비전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 성과는 민족 동질성의 빠른 회복과 물리적 분단의 장벽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지만 정치, 경제 체제가 상이해 합리적이며 실리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정보화 부문에서는 남한의 우위를 인식하고 남북한의 현실에 적합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정보통신 중심 단계별 교류협력 시나리오

### (1)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을 위한 시나리오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시나리오는 남북한 관계 개선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현황을 분석 후 단계별 추진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 남북한 관계 개선 시나리오

-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활성화(1단계) :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의 질적 확대를 통한 공동사업 가능성이 증대되는 단계
- 남북한간 자유 왕래 및 정보통신교류 실현(2단계) : 2단계는 전체적으로 북한의 시장사회주의가 도입되고, 남북한간 공동 생산이 본격화되는 등 경제교류 협력이 고도화되는 단계
- 남북한간 경제공동체 완성(3단계) : 3단계는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요소(노동력, 자본, 기술)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
- 남북통합(통일)

#### ○ 교류협력 단계별 정보통신교류의 범위

단계 구분	협력 단계	단계의 구분	정보통신분야의 가능한 사업내용
1	기반구축 단계	북한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정보통신 교류에 나서도록 하는 단계	공중망과는 분리된 남북한간의 연결, 북한과의 신뢰성 구축
2	협력증진 단계	북한과의 직접연결, 투자가 가능해지고 남북한간에 자유로운 정보통신의 소통이 가능한 단계	북한의 공중망과 연동을 추진하며, 남북한간의 정보통신망 교류를 사업적으로 추진
3	공동사업 단계	남북한간의 정보통신교류가 활성화 되고 남북한에서의 공동 사업이 가능해지는 단계	남북한간의 정보통신망 연동 및 정보통신사업의 공동추진

### (2) 단계별 정보통신분야 추진 내용

#### ○ 1단계에서의 정보통신교류 추진 내역

추진범위	추진내용	추진주체
교역전용 정보통신	남북한간의 교역을 위한 전용회선 구축,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의 연결	정부
정보통신망 개선사업	북한지역에 대한 일부지역 정보통신망 현대화 사업 참가	통신사업자
정보통신 기술교육	북한의 기술자들에게 정보통신 관련 기술교육 및 장비 제공	통신사업자

#### ○ 2단계에서의 정보통신교류 추진 내역

추진범위	추진내용	추진주체
교역망의 공중망 접속 추진	남북한 교역전용망을 북한의 공중망과 접속을 추진	정부
지역적인 정보통신사업 참여	북한 일부지역에서의 정보통신사업 직접참여	통신사업자
남북한 정보통신망 연결	무궁화 위성, 광케이블을 이용한 남북한 연결 전송망 구축	통신사업자

○ 3단계에서의 정보통신교류 추진 내역

추진범위	추진내용	추진주체
정보통신망 개선사업	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정보통신망 접속의 고도화를 추진	통신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준비	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표준화 교류 단계별 추진 내용

- 표준화 통합을 위한 탐색 단계 :  
양국의 정보통신 관련 자료, 정책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국내의 연구 및 양국의 표준 관련 기관간 접촉 창구 마련
- 표준화 교류 초기단계 :  
양국이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및 양국간 정보통신 표준 공동 연구 등 기본적인 협력 추진
- 표준화 교류 활성화단계 :  
양국간의 정보통신표준의 통합 및 실행
- 표준화 교류 완성단계
- 단계별 정보통신표준화 추진 세부 내용

4. 남북한 정보화 교류의 문제점

- 이념적 갈등  
남북한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에 관한 노력은 '7.4 공동성명 (1972)' 이후 '남북기본합의서(1991)' 등 꽤 많이 있었으나 '금강산 관광(1998)'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패를 거둘 수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이념적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계 구분	협력단계	경제분야	가능사업 내용
1	표준화 통합을 위한 탐색단계	현재	표준화통일을 위한 국내준비(연구, 정책 수립 등) 양국의 표준 관련 자료 교환 남북한 당국간 회담에서 통신, 표준화 거론 추진체계 정비(표준 기관간 협력 채널 확보)
2	표준화 통합기반 구축단계	기반구축 단계	표준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동 협력 남북한간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 비교 남북한간 정보통신 용어의 비교 공동 연구 표준화 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3	표준화 통합 협력단계	협력증진 단계	통신표준의 공동 DB 구축 추진 남북한간의 통신망 연결 추진 부분적인 권고성 공동 표준안 설정 국제 표준과의 연계에 의한 공동 표준안 수립 양국의 표준안에 대한 상호 인증
4	표준안 통일 완성 단계	공동사업 단계	통신표준의 공동 DB 구축 완료 남북한간의 정보통신 표준안 완성 및 적용 남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 조직 통합

## ○ 북한체제 도전가능성

남북한 정보화 교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 교육 등으로 강요되었던 이념 문화에 대해 심한 거부 반응과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부정과 체제에 대한 도전적인 행동이 발생할 것이다.

## ○ 미국의 북 제재법제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제재법제는 첫째, 테러지원국가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해외자산통제규정, 무역협정연장법, 통상법 등 경제제재법제, 둘째,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무기수출통제법, 원자력에너지법, 화학 및 생물학무기통제 및 전쟁 근절법, 화학무기협약이행법, 북한위협감축법, 핵확산금지법, 핵확산방지법 등의 대외관계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러지원국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적성국교역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국제무기거래규정, 수출관리법 및 동 규정, 대외지원법, 수출입은행법, 관련형사법규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남북 정보화 교류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인 바세나르체제 개선의 여지도 적다. 물론 최근 북한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EU 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을 통해 IT산업 발전의 모티브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바세나르 체제를 우회해서 EU 국가들과의 기술교류나 협정을 추진하는 데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 ○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

남북교류협력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외교와 경제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정보화 교류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 남북 정보화 수준차이

남북한은 정보화 시대의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반면에 북한에게 정보화는 체제불안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남북한 정보교류시 남한에게 종속될 수 있는 구조를 낳고 있다.

## ○ 남북한 통신부문의 제도, 법규, 시설 등에 대한 조사 소홀

지난 '91년 남북기본 합의서의 핵심 내용인 통행, 통신, 통상 등 3통 정책 가운데 통신 분야 교류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다고 볼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 제정된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조차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적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면 빨리 북한과 통신협정체결 및 남북정보통신협력위원회의 운영도 이루어져야 한다.

## 5. 결론

남북한 정보화 교류는 단순한 정보통신망 가설이 아니라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남북한 그리고 해외 한민족의 민족동질성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알 수 없는 나라이다. 흔히 그들의 외교정책을 럭비공 외교라고 한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아무 것도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내부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우리의 관계 당국과 교류협력 관계자들은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를 부작용에 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 정보화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경제난



을 극복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적 지원이 북한 체제의 변화와 남북한 통일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교류협력을 통한 대북한 경제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킬 수 있다.

남북한 정보화 교류 실현 여부는 남북한 당국의 의지와 인내심에 달려 있다. 과거 남북한 관계에서 보면 남북이 각자의 정치적인 실리와 체제내의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나 합의는 결코 남북한의 화합과 협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남북한 당국은 대결구도의 남북한 관계에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각자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기회비용으로 삼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21세기는 더 이상 소모적인 상호 비방이나 체제선전의 시대가 아니다. 이해와 협력을 통한 관계 증진과 상호도움이 중요한 시대이다. 남북 정보화 교류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는 한 단계 전진하여 공진(coevolution)할 수 있는 통일의 길에 더욱 가까이 자리 잡을 것이다. **TTA**